



익산함열여고,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

전주익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익산함열여자고등학교(교장 김연주)로부터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지난 7일 익산함열여자고등학교 내 '오색천' 축제기간 체험 부스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후원금은 전주시 내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전주익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은 "따뜻한 나눔을 전달해준 익산함열여자고등학교에 감사하다"며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함열여자고등학교(교장 김연주)는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익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2022년 7월에 개소했으며, 전주시 관내의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아영 기자



이승수국어학원, 전주사람에 성금 200만원 기부

이승수 국어학원(원장 이승수)은 지난 25일, 경기참체로 지치고 힘든 전주사람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이승수 원장은 "학원을 운영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 그 가족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전주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곳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작년 이어 2년째 백만천사가 되어준 이승수 국어학원에 기부현판과 기부증서를 수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여 모두의 귀감이 되어 주신 이승수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사람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경찰서 고민석 행정관 업무 유공 표창 수여

고창경찰서(서장 고영원)는 지난 25일 업무 유공 행정관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 수상자는 교통관리계 고민석 행정관이다.
고민석 행정관은 지난 10월 11일자로 고창경찰서로 발령 받은 새내기 행정관으로, 전국에서 온 2,300명의 참가자들이 제2회 고창고교보 마라톤대회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수여 받았다.
고영원 경찰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고창고교보 마라톤대회가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시 감사하다"며,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국민의 존경과 무한한 신뢰를 받는 고창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군산의료원, 올해 건이강이 공공의료원상 선정

군산의료원이 2022년 건이강이 공공의료원상에 선정됐다.
이 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고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공적도 기여도, 시급성, 적정성, 효과성 등 5개 부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의료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와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가 중단됨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코로나19 등 국가 의료재난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총 10개 의료원이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와 더불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사업비 지원금 100만원을 포상받게 된다. /군산=김갑근 기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적십자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연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제33대 회장으로 전북적십자사 이선홍 회장이 선출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제 32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으로 선출되어 3년 간 도내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섰던 이선홍 회장은 11월 14일 전북적십자사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추대되어 3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준을 받아 전북적십자사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전북적십자사 이선홍 회장은 "지난 3년간 전북적십자사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도내 자가격리자, 의료진들을 위한 비상사태



세트 전달, 현장방역지원을 펼쳤고 2020년 남원시 금지면 수해 피해현장에서도 전북적십자사는 탄탄한 조직력을 토대로 현장 복구활동, 물품지원 등 그 역할을 완수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3년도 전북적십자사가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선홍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에향운동본부 부총재, 세계사제전북비엔날레 회장으로 도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감사패 전달

황인홍 군수가 지난 24일 무주군청동서시길 홍보와 행사 참여에 적극 지원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유익적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날 황 군수는 군수실에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김현교 소장에게 다양한 탐방 서비스 제공으로 탐방객수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황 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그동안 관광·환경·생태·문화 분야에 있어 공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반딧불이 축제 체험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해 어사길 걷기 축제 운영, 구천동마을 축제 합동 개최, 무주산골영화제 및 자연환경 영화상영(1,700여명 참여), 지역사민작가를 초청해 덕유산국립공원내 자연사민전 개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탐방 문화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 어사길 구간(3km) 15인승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만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탐방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보냈다.
또 환경·생태분야에도 괄목한 실적을 보이면서 무주군 환경보호와 교육분야에 큰 획을 그었다.
공원 내 47개소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투



명페트병 1.8톤을 수거했으며, 자원재활용 시스템을 구축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유도 캠페인을 벌여 5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외에도 환경부로부터 숲생태 체험장 시범 사업을 유치해 국비 15여 원을 확보, 자연학습장 저지대에 생태 체험시설 구축 및 환경교육 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범국가적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백련사~설천봉-환경부 탐방객을 분산 연인원 3천600여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축구 체험 하세요"... 전주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견학 운영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과 함께 달아오른 축구 열기가 전주 월드컵경기장도 달구고 있다.
K리그 전봉의 강호 전북 현대 모터스의 홈구장에서 축구를 체험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
25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 월드컵운영부에 경기장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전화가 최근 들어 하루 대어섯 통씩 걸려 오고 있다.
하루 한두 통 걸려 오던 것이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즈음해 두세 배로 증가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전북 현대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2022 한일월드컵 FA컵 대회를 끝으로 비시즌에 접어들어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월드컵경기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견학을 통해 선수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내부 로비와 선수 입장 이동로를 거쳐 잔디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축구선



수가 되어 볼 수 있다.
경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는 스타 플레이어도 될 수 있다.
또 VIP실에서 여유롭게 잔디 그라운드를 조망하는 귀빈이 되어 볼 수도 있고 풋살장에서 풋살 체험도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농기센터, 공동체 구축 위한 맞춤 구매 상담

남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24일, 관내 가공사업장 농업인 등 약 3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맞춤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지역 내 농업인들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상담은 롯데마트, 이랜드(킴스클럽), 중소기업 유통센터, 코리아푸드 플러스 오버파워, MK마켓트, 민겸파니, 에이치비로퍼레이션, 레플렉스푸드코리아, 열케이 팩토리, 온라인 유통센터, (주)이니스, 함께하는 상회 총 13개 기업체들이 참여해 농업인과 기업체 1:1 매칭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소방체험교실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25일, 관내 신나는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OPEN-소방서!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학교·어린이집 및 가족 단위 관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서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체험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습 △소방서 관람 △소방차 탑승체험, 방화복·헬멧 착용하기 등 소방관 체험 △기념촬영 및 화재예방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소방관의 꿈을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기대에 가득 차있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소방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Violence)에 참여했다.
#ENDViolence 캠페인은 다양한 폭력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외교부를 시작으로 각 계 인사들이 릴레이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경찰청장 등이 참여했다.강황수 청장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고, 다음 캠페인 참여 대상으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이창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라디오·버스광고', '재학대 우려아동 합동점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기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황수 청장은 "아동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김영태 기자



건강관리협, 캄보디아 사업 비전염성질환예방 나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함께 캄보디아 프렙프노우 지역주민 비전염성질환 예방 캠페인을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부에서 최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프렙프노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인식 개선 교육과 비전염성질환 예방관리 정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야외 활동을 제공했다.
캠페인에는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장, 월드뱅크 컨설턴트 팀, 현지 정부 관계자, 지역주민 1,000명 등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보건부 Nham Soph Eou 비서실장은 캄보디아 프렙프노우 지역의 비전염성질환 감소를 위해 보건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간접 김인원 회장은 "현지 비전염성질환 예방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보건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비전염성질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순창 평생학습·미래교육 어울림 한마당 개막

지난 25일 순창 장애인체육관에서 2022 순창 평생학습&미래교육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쌍치 시산초등학교 사물놀이반 학생들의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가 이어졌다.
아울러 체험부스는 임시이름림, 아로마 인헤일러 만들기, 네일아트,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등 12개의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분야 체험과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드론 스마트팜 메이킹워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존 등 2개 분야의 미래교육 체험이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